

투썸플레이스 김기성 강남점장

그녀의 목소리가 허스키한 이유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평소 곱고 부드러운 음색을 자랑했던 김기성 점장의 목소리가 허스키한 중저음으로 변한 까닭은 지난 해 12월 닷을 올린 투썸플레이스 강남점의 선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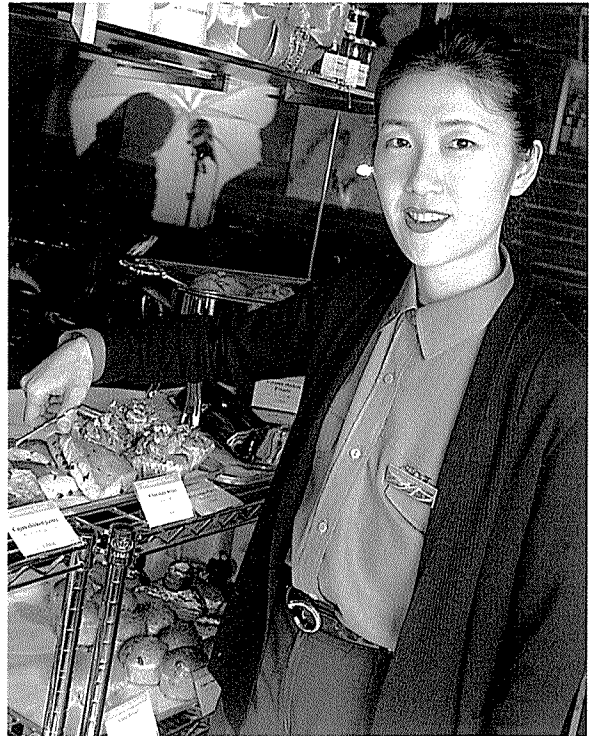
“오픈 이후 단 하루도 쉬 적이 없어요. 한창 신혼인데 남편 얼굴 한번 제대로 볼 날이 없을 정도니까요.”

제품 생산과 직원 서비스 등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관리를 총괄하는 김기성 점장의 업무는 누가 봐도 녹록치 않다. 강남점 직원들에게 그녀는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자이자 고객 접점에 선 그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는 친언니 같은 존재이다.

“하루 12시간 넘게 숨 돌릴 틈도 없지만 언제나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들을 보면 힘이 나요. 직원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녀의 직원 관리 스타일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권한과 책임’이다. 업무를 꼼꼼하게 세분해 관리하는 김 점장은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권한을 100% 일임하고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을 함께 지도록 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인 매장 직원들이 훨씬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된 것도 그녀의 업무 관리 방식이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고단함으로 쉬어버린 목소리가 꽤 오래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녀는 매장 곳곳을 둘러보며 잠시도 쉬지 않는다. 김 점장에게 투썸플레이스 강남점은 서비스 업계의 베테랑으로서 그 동안 끈뀌왔던 욕심을 마음껏 펼쳐내는 무대나 다름없기에 매장에 선 그녀에게선 언제나 신명이 느껴진다. 글·김미선 기자 | 사진·차지현



안스베이커리 부평점 김승화 씨

어느 만학도의 값진 꿈

봄바람이 마음을 들뜨게 하는 3월, 누구보다 마음 설레는 사람이 있다. 39세라는 늦은 나이에 대학생이 되는 안스베이커리 부평점의 김승화 씨가 그 주인공이다. 제과 일을 시작한지 5년이 되면서 새롭게 자신을 채찍질하고자 선택한 도전에서 받은 성공을 거둔 셈이다. 김승화 씨가 제과일을 시작한 것은 IMF 때 다니던 직장을 잃고 난 후다. 우연한 기회로 제과와 인연을 맺었지만 어느덧 이 분야에서 확실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만큼 애정이 깊어졌다.

파리장베이커리 윤상호 & 시트론과자점 윤귀호

똑같은 얼굴 같은 꿈을 가진 쌍둥이 형제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유명한 제과점 '파리장베이커리'와 '시트론과자점'의 제품 담당 공장장을 쌍둥이 형제가 맡아 화제다. 일란성 쌍둥이라 얼핏 보기에는 같은 얼굴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형과 동생의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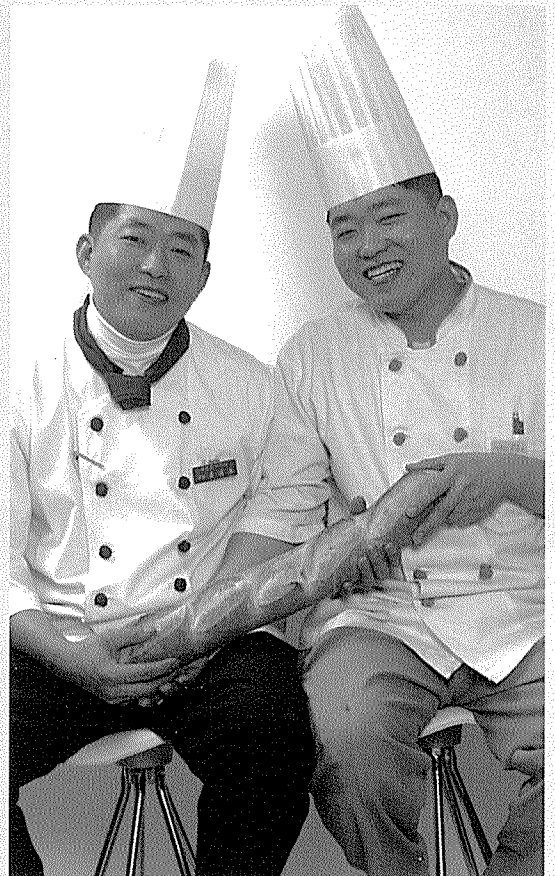
3년 전부터 파리장베이커리에서 근무하는 형 윤상호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조명원 사장과 인연을 맺어 근무를 시작했다. 20~30대 젊은 기술인 모임 QPB(Quality People Bread)의 회장이기도 한 윤상호 씨는 모임을 통해 정기적인 세미나와 제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쏟는다.

기술인 출신인 시트론과자점의 이호영 사장을 존경해 함께 일하게 됐다는 동생 윤귀호 씨는 양과자 쪽에 관심이 많아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소재 선택에 힘쓰며 형과 같은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과업에 종사하시는 삼촌의 권유로 제과일을 시작한 쌍둥이 형제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것에 후회한 적이 없다고. 다만 현장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같은 길을 걷기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의지가 된다는 두 사람은 인터뷰 도중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 경제의 불황을 걱정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두 형제는 꿈을 묻는 질문에 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현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짧은 이 한마디에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며 보람을 찾는 소박한 꿈과 부산 제과업계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글·박소희 기자 | 사진·정영주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 타성에 젖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죠. 늦게 시작한 만큼 그렇게 시간을 쓰기에는 아깝더라고요.”

김승화 씨는 좀더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배움의 길을 고민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느꼈던 답답한 경험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이 시급했다.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그녀가 결심한 곳은 해전대 호텔제과제빵과. 현장 경험자를 위한 이론 프로그램에 마음이 이끌렸다.

사실 대학을 다니는 것은 하루 종일 근무해야하는 현장의 특성상 쉽지 않는 일이다. 다행히 지금 일하고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면

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2년 동안 미뤘었던 결심을 겨우 실행하게 된 것이다.

김승화 씨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다. 늦게 시작한 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다.

“학생으로 누려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고 싶어요. 장학금도 타보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에도 가보고 싶어요. 물론 걱정이 앞서지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설레네요.”

“늦은 나이가 부끄럽지 않게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고 말하듯 빛나는 그녀의 눈빛에 학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13

글·김영주 기자 | 사진·정영주